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집약적으로 구현되어있는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이다.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을 직접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몸소 명당자리에 터전도 잡아주시고 형성안도 거둬 지도해주시였으며 최고사령관의 전투부대, 척후대인 강력한 근위부대를 건설에 투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건설장을 여러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면서 건설방향과 방도를 일일이 밝혀주시였으며 당창건기념일까지 공사를 끝낼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심장깊이 새긴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일당백공격정신, 단숨에의 투쟁기풍으로 철야전투를 벌림으로써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웠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에는 보육실과 교양실, 운동실, 지능놀이실, 치료실을 비롯하여 250여개의 방들이 꾸려져있으며 원아들의 생활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들, 야외 및 실내놀이장과 공원, 갖가지 유희오락시설과 오락기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소, 볼수록 회한하고 황홀하오, 선군시대의 걸작품이요라고 하시며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이들을 위한 이처럼 훌륭한 보금자리는 세상에 없을것



때부터 교통구정,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킬수 있도록 교양하는 장소로 특색있게 꾸려놓았으며 호수에 정각까지 세워놓으니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모든 요소요소가 생활환경이자 교육교양장소답다고 하시며 이런 시설을 꾸려놓은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원아들을 잘 키우는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보육원, 교양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니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원아들이 궁궐같은 요람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넘친 생활을 누리는 모습을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새로 일떠섬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 높이 과시되게 되였다고 다시금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훌륭히 건설했다고, 나라의 건설교육자부대가 다르다고 하시면서 올해에만도 선군시대 건설의 대번영기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을 수많은 일떠세운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또다시 주시였다.

본사기자

이라고, 부모없는 원아들에게 제일 좋은 몇정집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완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보육실, 교양실, 잠방, 세면장, 놀이장, 자연관찰실 등을 원아들의 보육과 교육교양, 성장발육, 지능개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손색없이 꾸렸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아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는 운동실과 물놀이장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했으며 햇빛쬐이기와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수 있게 내정도 아담하게 조성해놓았다고, 계단란간도 장난이 세찬 아이들이 오르내리면서 다치지 않도록 설치를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아들의 신체조건에 알맞는 식탁과 의자들을 놓은 식사실이 마음에 든다고, 당에서 보내준 견본품대로 우리의 로동계급이 만든 보기 좋고 쓰기 편리한 집기류들을 그득히 장만해놓았다고, 주방설비들도

현대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내과, 외과, 구강과 등을 갖춘 치료병동과 리발실도 흠잡을데 없으며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생활실들과 복도들에 그림장식을 부각하여 붙여놓으니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선것만 같다고 기뻐하시였다.

생활필수품과 식료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돌아보시면서는 없는것이 없다고, 마치 백화점같다고 하시였으며 세탁실비도 최신식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야외에 건설해놓은 자전거주로와 교통공원을 원아들의 놀이터인 동시에 어렸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 비행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에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제447군부대, 제458군부대가 참가하였다.

비행훈련은 도로비행장에서의 리착륙비행과 공중목표포착비행, 특수기교비행순서로 진행되였다.

훈련에서 전투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평시에 련마한 높은 비행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행훈련을 보시고 매번 느끼는것이지만 우리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정말 잘 탄다고, 나라의 영광을 지키고있는 저 미더운 전투비행사들은 모두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품에 안아 사랑과 정으로 키

우신 금싸래기와 같은 자신의 전우들, 사상과 신념이 그 누구보다 강한 불사조들이라고 못내 자랑스러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훈련에 동원된 추격기 550호 좌실에까지 몸소 오르시어 전투기술적제원들을 하나하나 료해하시며 추격기비행사인 비행중대장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거듭 만족해하시면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제447군부대, 제458군부대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으며 높은 비행술을 보여준 비행대대장들인 김현웅, 강경철, 김창호, 신태성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한등급의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하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성원들과 현대전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시고 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도와 새로운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새로 개건된 5월1일경기장에서 여자축구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0월 28일 평양시민들과 함께 새로 개건된 5월1일 경기장에서 국가종합팀과 월미도팀사이의 여자축구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관람자들은 나라의 체육발전과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평양시민들에게 손저어주시였다.

경기는 월미도팀의 먼저차기로 시작되였다.

량팀 선수들은 시작부터 경기속도를 높이며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적극적이고 대담한 공격을 시도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훈련방침을 받들고 평시에 련마한 우리 식의 경기전법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 완강한 투지를 보여주는 량팀 선수들을 관람자들은 열렬히 응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종합팀 여자축구선수들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면서 다양한 축구기술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련속 통쾌한 득점장면을 펼쳐보일 때마다 박수를 보내시였다.

경기에서는 아시아의 최강팀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준 국가종합팀이 월미도팀을 9: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겼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관람자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경기장을 진감하며 평양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기가 끝난 다음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을 만나주시는 자리에 참가하지 못하였던 탁구선수 김정을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가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김정선수와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5월1일 경기장이 당창건기념일을 계기로 우리 나라 체육시설의 상징,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개건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5월1일경기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과 통이 큰 결단에 의하여 일떠선 세계적인 경기장이며 선군조선의 자랑이고 재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15만석의 수용능력을 가진 5월1일경기장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

으로 끝낼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기장을 훌륭히 전변시키는데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군인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비상이 높아지고 특히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하여 체육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있다고 하시면서 5월1일경기장을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되게 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한 군인식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새로 건설한 군인식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연건축면적이 2만 6,120여㎡이고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이루어졌으며 2,500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군인식당에서는 국수, 빵 등을 봉사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군인식당을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48년 2월에 개업한 군인식당은 새 조국건설시기에 물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영업을 중단없이 진행하였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승경축연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원자재보장대책까지 몸소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군인식당의 문은 항상 열려져있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군인들은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식당이 지난 수십년간 군인들을 위한 급양봉사기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식당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봉사활동을 잘함으로써 군인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은덕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식사실,

주방을 비롯한 군인식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봉사활동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식사실들을 대중봉사시설답게 넓직하면서도 시원하게 건설했으며 내부장식도 특색있게 했다고 하시면서 국가연회장으로 리용해도 손색없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식탁과 의자 등 가구비품들의 질도 좋고 수용능력에 맞게 주방을 잘 꾸렸으며 국수그릇을 비롯한 집기류들도 그쯘히 장만해 놓았다고, 특히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현대적인 소독 및 세척설비들도 갖추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인식당의 관리운영과 봉사활동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식당을 우리 군인들이 즐겨 찾는 대중식당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군인들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친절성, 문화성을 발휘하는 것과 함께 국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인식당에서는 국수의 질을 높고 유류관을 비롯한 이롭난 식당들과 경쟁하여야 한다고, 특히 조리사들의 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식당운영을 정상화할수 있게 원자재보장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보고하라

고, 그러면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군인식당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나무랄데가 없이 훌륭히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군인식당을 선군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보란듯이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동행한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군인식당 종업원들이 준비한 국수의 맛을 친히 보아주시면서 민족음식인 국수의 고유한 맛과 전통을 잘 살리고 여러가지 음식물의 질을 더 높임으로써 군인들의 사랑을 받는 봉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김정은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제 103 (2014)년 10월 24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단군릉을 현지지도하신 2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단군릉개건을 유훈관철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 1994년 10월 29일 새로 훌륭히 개건된 단군릉을 돌아보시면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국보인 단군릉을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력사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민족문화유산을 풍부히 하고 그것을 옹계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단군릉이 웅장하게 개건됨으로써 우리 민족이 단군을 원시조로 하여 인류문명의 령명기로부터 한강도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다는것이 뚜렷이 확정되고 온 겨레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민족의 성지가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큰 경사이며 주체적인 민족유산보호정책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중시하시고 여기에 힘을 넣으시어 우리 민족의 우수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재적인 예지와 주체적안목으로 대국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외곽되고 복잡하게 얽혔던 력사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어 우리 나라가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을 확증해주시고 단군조선으로부터 력사발전의 합법칙과정을 거쳐 면면히 이어온 우리 민족사를 옹바로 정리해주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 민족유산을 주체적립장에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정책을 제시하시고 력사에 묻혀있던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새롭게 발굴고증하며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파괴된 유적들을 원상대로 복구개건하도록 이끄시어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산을 민족의 재보로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안겨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의 력사를 바로잡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옹바로 평가하고 해명하시어 정의로운 민족사를 더욱 빛내여주시었으며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이 깃든 문화유산들이 민족의 력사와 혈맥을 이어주는 귀중한 재보로 빛을 뿌리게 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력사유적들과 명승지들을 찾으시고 민족유산보호사업이 사람들에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깊이 심어주는 교양사업으로 되도록 이끌어 주시었으며 조상전래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기 위하여 온 나라에 민족의 넘과 향취가 차넘치게 하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원시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 우리 인민이 창조한 문화와 풍습을 보여주는 대로천력사박물관인 평양민속공원건설을 발기하시고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어 우리 민족의 오랜 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민족의 현대력사를 찬연히 빛내여주시었을뿐 아니라 반만년의 민족사를 옹바로 정립해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쳐주신 민족의 아버지, 절세의 애국자, 대성인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나라를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통일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여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민족유산보호에 관한 사상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입니다. 우리는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풍습과 감정정서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며 민족문화유산들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적으로 발굴복원하고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력사유적유물들을 원상대로 잘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력사유적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

해갈 민족의 재부입니다. 력사유적유물을 잘 보존관리하여야 인민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민족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민족의 력사는 오랜수록 빛이 나며 력사유적유물은 원상대로 보존될수록 더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력사유적유물들을 해당 사회와 력사적시기의 특성에 맞게 옛모습을 살려 원상대로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옛수도였던 평양과 개성의 유적유물들을 잘 보존관리하며 다른 지방들에 있는 국보적의의를 가지는 유적유물들을 보존관리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이 깃든 대상들부터 복구복원하여야 하며 유적유물을 개건, 보수관리하는 사업을 년차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치있는 력사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고 풍부히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부정하는 허무주의적 경향과 유적유물을 잘 보존관리하지 않고 손상시키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기 위하여

민족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태도가 반영되어있습니다.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고 대를 이어 전해오는 가치있는 창조물들과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민족문화와 예술, 민족풍습을 적극 장려하고 인민들이 민속명절들을 즐겁게 쇠도록 하였으며 민속공원과 민속거리로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적향취가 짙게 풍기는 민족음악과 민족무용, 민족미술을 발전시키고 태권도, 씨름을 비롯한 민족체육을 장려하며 유희오락을 하여도 율놀이, 팽이치기와 같은 민속놀이를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음식과 조식웃을 장려하고 고상한 우리 말과 인사법을 잘 살리며 고려의학과 민족적건축형식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잘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산 좋고 물 맑은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불리워왔습니다. 금수강산이란 비단에 수를 놓은것처럼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백두산과 금강산, 묘향산, 총서정을 비롯하여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산, 명승지들이 많으며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후세에 길이 전해갈 천연기념물들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명승지들이 착취사회에서는 돈값과 권세있는자들의 유희지로 되어있었지만 인민이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다 인민의 유원지, 문화휴식터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명승지들의 아름다운 풍치를 돋구어주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돌 하나도 귀중히 여기며 명승지구역을 있는 새나 산짐승들도 적극 보호하여야 합니다.

명승지의 람승도로와 시설물들을 애호관리하며 명승지를 더 많이 찾아내어 인민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명승지를 보호관리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명승지의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원상대로 보존하는것입니다. 산불과 산림벌벌, 지하자원개발과 병해충, 오수와 공업폐수물로 인하여 명승지가 파괴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력사박물관을 비롯한 력사교양거점들을 인민들의 문화적적요구와 시대적추세에 맞게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력사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민속공원과 민속거리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애국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교육교양거점입니다. 박물관이나 민속거리 같은것을 잘 꾸려놓으면 국가적인 재보가 되는 것만큼 이런 교육교양거점들을 꾸리는데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력사박물관들과 민속공원, 민속거리들을 민족적색채가 살아나게 잘 꾸려야 합니다. 평양민속공원을 애국주의교양의 거점답게 더 훌륭하게 꾸리기 위한 2단계공사를 빨리 완공하며 아직 민속거리를 꾸리지 못한 도들에서는 자기의 특성에 맞게 잘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력사박물관의 표본이 되고 력사교양거점의 본본이 되게 세계적수준에서 훌륭히 꾸려야 합니다. 지방의 력사박물관들도 자기 지방의 얼굴이 살아나게 잘 꾸려야 합니다.

박물관의 진렬전시를 잘하여야 합니다. 력사유물들의 진렬전시는 참관자들이 력사를 인식하는데 편리하게 과학성과 순차성, 생동성과 리체성이 보장되게 하여야 합니다. 력사유물들을 더 많이 전시하여 박물관의 전시내용을 풍부히 하고 력사적시기별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문화유산들과 력사교양거점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민족문화유산들과 력사교양거점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 미풍양속을 잘 알고 민족적공지와 애국심을 깊이 간직하며 민족성을 고수해나가기 위하여야 합니다.

력사박물관과 민속공원, 력사유적과 명승지들에 대한 참관, 견학을 널리 조직하여야 합니다.

지금 민족문화유적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잘하지 않고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묘향산에 가면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등산로정을 따라 등산을 하면서 력사박물관과 력사유적들도 돌아보면 좋겠는데 그냥 스쳐지나고있습니다. 이것은 력사에 대하여 무관심한 표현입니다.

우리 나라의 명승지들과 국보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유적들마다에는 백두산철세위인들의 거룩한 자욱과 령도업적이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지방사람들이 평양견학을 오면 여러 대상들과 함께 조선중앙력사박물관, 평양민속공원, 모란봉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력사유적들을 참관하도록 하며 사람들이 금강산이나 구월산, 칠보산에 가면 그곳에 있는 력사유적들을 돌아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에 대하여 잘 알게 되며 동시에 력사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지게 되고 민족적공지를 더 깊이 간직하게 될것입니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민족의 자랑인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도 일 반적인 상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성원이라면 누구나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일군들이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부차적인 일로 여기면서 이 사업을 뒤전에 미루어놓고있습니다. 일부 시, 군들에서는 력사유적유물들의 보존관리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 귀중한 력사유적유물들이 없어지거나 못쓰게 되고있습니다. 명승지의 풍치를 손상시키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있습니다.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3년간의 전쟁으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이 무참히 파괴락탈당하면서도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있는것조차 제대로 보존관리하지 않는것은 민족적자존심의 견지에서 보아도 허용할수 없는 일입니다.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를 소홀히 하다가는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성원이라면 누구나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일군들이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부차적인 일로 여기면서 이 사업을 뒤전에 미루어놓고있습니다. 일부 시, 군들에서는 력사유적유물들의 보존관리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 귀중한 력사유적유물들이 없어지거나 못쓰게 되고있습니다. 명승지의 풍치를 손상시키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있습니다.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3년간의 전쟁으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이 무참히 파괴락탈당하면서도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있는것조차 제대로 보존관리하지 않는것은 민족적자존심의 견지에서 보아도 허용할수 없는 일입니다.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를 소홀히 하다가는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에서는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들에 력사유적과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대상을 분담해주어 민족유산에 대한 보호관리를 전군 대중적으로 해나가며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 과학, 문학 예술, 출판보도기관들에서는 민족고전에 대한 연구와 번역출판을 잘하고 력사상식도서들을 많이 출판하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력사유적유물과 민속전통에 대한 소개전전을 널리 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력사유적과 유물을 귀중히 여기고 애호관리하며 민족의 넘과 곳곳이 이어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각과 해당 성, 중앙기관들에서 력사유적과 박물관, 명승지들의 건설과 보수관리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요구되는 설비, 자재,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력사유적과 명승지들에 대한 참관, 관광을 통하여 번 자금가운데서 필요한 몫을 민족유산보호부문에 돌려 자재로 정상보수관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와 천연기념물관리사업에 대한 법규법과 규정들을 잘 만들고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감독통제기관들에서 그것을 어기는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하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을 과학화하는것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입니다. 민족유산보호부문사업도 과학화하지 않으면 높은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는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령계

밀에 력사유적과 유물보존관리에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단층색과 보존처리용시약 같은 필요한 자재들을 국내에서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력사유적과 유물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 비물질문화유산들을 자로기화하고 그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를 전문분야의 실력있는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과학연구중심,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나라의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중앙지도기관입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할수 있고 민족유산보호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해나갈수 있습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권능을 높이고 나라의 전반적인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지도국에서는 과학연구기관들, 교육기관들과 협력하여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수집하고 그에 대한 심의등록, 평가 사업을 잘하며 중앙과 지방들에서 진행되는 비물질유산보호사업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합니다. 지도국에서는 중앙과 지방에 조직되어있는 비상실민족유산보호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속에서 가치있는 력사유물들을 기증하는 애국적소행에 대하여는 소개선전도 하고 평가도 해주어야 합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는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사업도 벌려나가야 합니다. 지도국에서는 학술대표단을 다른 나라들에 보내어 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다른 나라 력사학자들과 유산부문 인사들과의 공동연구, 학술토론회도 조직하며 대표단을 초청하여 우리 나라의 력사유적과 명승지들에 대한 참관도 시켜야 합니다. 고구려벽화무덤과 개성시의 력사유적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우수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우리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대외에 소개선전하는 데도 좋을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단군의 후손들입니다. 온 겨레가 민족중시의 립장에서 력사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며 민족문화유산과 관련한 학술교류도 많이 하여 단군조선의 력사를 빛내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입니다.

민족유산보호부문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민족유산보호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민족유산보호부문에 깃든 백두산철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새기고 순결한 량심과 성실성,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맡겨진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족유산보호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가운데는 외진 산골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알아주진 말건 자기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애국자, 숨은 공로자들이 많습니다. 당조직들에서는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의 성과와 공로를 공정하게 평가해주고 적극 내세워주며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민족유산보호부문 일군대렬을 잘 꾸려주어야 합니다. 민족유산보호부문에 당에 충실하며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책임성이 높은 일군들을 배치하며 부족되는 연구사, 강사, 기술자, 기능공들을 제때에 보충해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에서는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민족사적업적을 빛내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이 부문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하겠습니까.

모든 일군들은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하겠습니까.

모든 일군들은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하겠습니까.

인민이 부귀영화를 누리간다

부귀영화를 누리한다는 말은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영화롭고 호화롭게 사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사람들을 엄격한 신분제도에 얽어매었던 봉건사회에서 부귀영화는 양반관료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였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귀영화는 1%로 통칭되는 자본가, 특권층들만이 누릴수 있는것으로 되고 있다. 2011년 9월 자본주의경계의 심장부, 독점자본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 타오른 반란가시위가 80여개 나라의 1500여개 도시로 급격히 파급되어 자본주의의 300여년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최대규모의 반자본주의투쟁으로 전개되었던것은 극도로 첨예화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급격모순이 낳은 필연적산물이었다. 그들이 들었던 《우리가 99%이다. 불평등을 끝장내자!》라는 구호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처지가 과연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좋은 실례이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있는 엄마다. 집세와 식비, 육아비를 갚고도 겨우 겨우 버는 것 같다. 갓아야 할 학자금 용자가 11만달러나 밀려있다. 저축은커녕 변변한 옷을 살만 한 여유도 없다. 대학원을 다녀 석사학위까지 땀 흘린 이 모양이다. 고맙다, 아메리카. 나는 99%다.》

한 미국녀성의 탄식과 개탄이다. 바로 변화기의 뒤에 가리워진 인민의 모습이며 영원히 달라질수 없는 자본주의위선속에 가려진 부귀영화의 진실이다.

그러나 동방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이 오랜 세월 꿈으로만 여겨오던 부귀영화를 누리며 만복을 꽃피우고있다. 불합은 초고층빌딩들의 주인들도, 현대적인 승마구락부와 스키장, 물놀이장, 고풍스러운, 세계적인 명승지의 주인들도 모두 이 나라의 평범한 인민들이다.

10월에만도 조국강산을 진감시키며 인민을 위한 얼마나 멋진 창조물들이 솟아났는가. 과학자들의 탁월한 위성과과학자주력기구와 연풍과학자유양소, 교육자

들의 행복의 집인 김책공업종합대학교교육자살림집, 부모있는 아이들도 부러워할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인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현대적으로 개건된 5월1일경기장,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군인식당. ...

이 땅우에 부강하고 융성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워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의 뜻이였고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원대한 리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평등자만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 불철주야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다.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력지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산원유선중앙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룡라인민유원지, 류경원,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메아리사

격관, 송도민국계소년단야영소, 평양육아원, 애육원, 사회주의바다다양기 풍기는 어장과 철원아래사과바다...

마치 그이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오신 꿈을 펼쳐 하나의 황홀한 명화를 그려놓으시는듯 비상한 사색과 거창한 창조로 공화국을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전경화로 완성하고계신다. 아마도 그의 가슴속에는 그 모든 시간과와 융성한 설계도, 완성된 실체도, 신명하게 가득차 있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무한대한 사랑과 정으로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내세워주신다.

옛날에는 선 행정관이라는게 있어 왕의 행차에 앞서 다니며 준비를 시켰다. 하지만 오늘 공화국에서는 인

민에게 안겨줄 살림집과 유원지, 병원과 휴양소가 건설되면 제일 먼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시며 제기되는 문제들도 즉석에서 풀어주시고 또 모든것이 인민들의 리익과 편리에 맞게 일떠세도록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신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모든것들의 안전성과 편

리성에 대해서도 자신께서 직접 확인하시고야 마음을 놓으신다. 지난해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꾼들의 만류에도 《질들이기》작업중에 있던 사도의자에 앉으시여 인민들이 리용할 모든 주로들을 다 보시기 위해 하늘층천에 솟은 대화봉정점까지 오르신 사실

은 공화국이 말하는 사회주의부귀영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것이냐며 그것이 어떤 사랑과 헌신속에 마련되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려는 생동한 화폭이었다.

얼마전 완공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찾으시여서는 집주인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며 교



위성과과학자주력지구



연풍과학자유양소



5월1일경기장

누구나 부러워할수있는 아이들의 영광의 여람

불현듯 지난 2월 원아들을 찾으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떠올랐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그 겨울날 소문없이 조용히 애육원과 육아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가에는 뜨거운 빛이 흐르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사시창철 물고기를 먹일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취해주시고도 늘 마음속에 원아들을 두고계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6.1절에는 또다시 애육원을 찾으시고 원아들을 축복해주셨으며 다음해에는 현대적으로 건설된 애육원에서 6.1절을 쇠게 될것이라고, 그때 다시 만나자고 사랑의 약속을 하신것이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원아들의 보금자리를 잡아주시고 설계와 건설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고도 삼부의 무더위속에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세심한 가르침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현신으로 낮과 밤을 이으며 세상에서 으뜸가는 원아들의 요람을 세우도록 하시고 완공되었을 때에는 또다시 찾으시고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멧쟁이 집을 안겨주게 되었으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쁘시며 보셨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정녕 자신들에게 모든것을 강그러 버치신 친부모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아니겠는가.

따뜻한 햇빛이 비쳐드는

밝은 창가마다에서 흘러오는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안아온 결실이다.

인간세상에서 고아들은 설움의 대명사로 일러왔다. 부모가 없어 애듯한 사랑도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자고 동냥을 다니는 거지아이로 되가고있는것이 고아들의 불우한 운명이다. 설사 고아원에 들어갔어도 따뜻한 사랑은 고사하고 설움의 날과 달을 보내며 희망없이 사는것이 고아들의 처지인것이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실렸던 글이 떠오른다.

《...이들 고아들은 생물적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학대당함으로써 고아원에 온다고 보면 맞다. 고아들은 이런 시설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적으로의 모란 차를 받는다. 단지 어린이로서 대접을 제대로 받는것도 힘들다.》

그렇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잊혀진 존재》로 버림받고 천대받으며 근근히 연명해가는것이 고아들의 처지이지만 공화국에서는 천지이만 공화국에서는 천하의 보살피는 천어비의 따뜻한 사랑속에 설움이란 모르고 밝고 명랑하게 자라고 있는것이다.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생각할것이다. 애육원이나 육아원이라고 하면 부모없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그 어느곳보다 설움이 응축된 곳이라고. 그러나 공화국에는 애육원이나 육아원은 있어도 고아의 설움은 없다. 설움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는것이다.

새로 일떠선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의 화려한 모습을 TV로 보면서 지금 나라 인민들이 저저마다 말하고있다. 저런 곳에서 마음껏 뛰고 보면 맞다. 고아들은 이리나 저리나 다 부러워할 처지라. 최상급의 집을 원아들에게 안겨주신 원수님의 사랑의 정치가 이 세상 제일이라고.

본사기자 리경순



문명강국건설의 길에서

멧쟁이공장으로

지난 7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원산구 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갑피직장, 제화직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와 제품의 질에 대해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앞으로 공장이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 과업에 대해 가르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을 높을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계절과 용도에 따라 신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 또 맵시있으며 가볍고 든든한 신발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그러하면 생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을 찾으셨것은 지난 1월 중순이었다. 장시간에 걸쳐 과학연구사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그곳 과학

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심화시키며 과학기술성과의 알찬 열매로 조국의 부흥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며 국가과학원의 물질기술적

인민군대에 대한 믿음

지난해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하과학자거리건설장을 찾으셨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주력기구를 보시면서 살림집들이 멋있다고, 길보기가 속보기라고 외부만 보아도 들어가보고싶은 마을이 저절로 든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잘한데 대해 치하하시였다. 이어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며 군인건설자들이 제일 어려운 지

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며 교육자들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 자신께서는 더 바랄것이 없다는 친부모의 심정어린 말씀도 하시고 새로 일떠선 연풍과학자유양소를 돌아보실 때에는 휴양소가 손색없이 완공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이만 하면 과학자들에게 합격될수 있겠다고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변칙이 는 곳들도 많다. 하지만 공화국에서처럼 모든 창조물이 다 인민을 위한 창조물이고 근로하는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평등자가 헌신과 로고를 다 바쳐가며 사랑과 정을 기울이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다. 남조선의 《련합뉴스》, 《뉴스스》, 《통신뉴스》 등 언론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정치를 평하며 《인민을 돌보는 지도자의 면모》, 《인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정치》, 《김정은제1위원장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지도자》라고 전했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기들이 누리가고 나날이 현실로 창조되는 부귀영화를 궁지없이 자부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사회주의부귀영화이며 인민이 주인된 공화국의 참모습인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나의 조국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신다

그리운 조국을 방문하여 보고 듣고 느낀 모든것을 돌이켜보는 나에게는 저절로 눈물이 앞선다. 비록 평등은 크지 않고 인구는 많지 않아 나 나의 조국이 참으로 훌륭한 나라라는 감동에서 오는 기쁨의 눈물이다.

내앞에는 세계정치지도가 마구 걸려있다. 나는 지도우에 펼쳐진 나의 조국을 눈여겨 찾아보았다. 눈길을 따라 마음속에는 대비약과 최대한 속도로 자기의 발전행로를 좇으며 당당히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조국, 세계 그 어떤 대국들과도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의 자주권을 행사하는 조국의 위대한 현실이 영화화면처럼 떠올랐다. 사람들은 누구나 김일성주석을 부를 때마다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최대의 경모심을 담아 호칭한다. 참으로 가슴뭉클해지는 말이다. 조국에 가본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뜨겁게 새겨안게 된다. 김일성주석께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기때문이다. 주석께서 세우신 조국은 돈의 생의 기준으로 삼은 불평등한것이 없으며 창조되는 모든것이 전체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고스란히 돌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필요한 모든것을 국가의 부담으로 다 보장받고있다. 훌륭한 학교들과 유치원들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모두가 학비라는 말조차 모르고 마음껏 배우고있다. 조국인민들의 마음속에 숨은 꿈과 희망이 새겨져있는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동상 제막식으로부터 태양절을 경축하는 중앙보고대회와 열병식, 김일성화축전, 축포야회, 경축공연 등 성대한 행

사들을 보면서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특히 열병식장에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며 손을 흔드신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은 그 어떤 명화가들도 그려낼수 없는 명화중의 명화폭이었다. 령도자와 인민, 군대와 인민이 일심일체된 이런 나라를 감히 어찌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파대망상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나의 위대한 조국이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에 있어서 세인이 상상할수 없는 무진막강한 나라라는것을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을 보고 확신하였다. 그곳을 돌아보면서 나는 조국의 선군력사와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에 깃들여있는 정신과 힘의 원천, 제국주의열강들의 압력에서도 동요없이 곧바로 나아가는 조국의 현실과 밝은 앞날에 대해 똑똑히 알게 되었다.

정말 나의 조국은 강위력한 나라이다. 평양의 아름다운 거리들과 현대적인 건축물들, 주체조선의 상징인 주체사상탑과 천리마동상 등은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모든 창조물들은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압력에도 끄떡없이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근본동력은 무엇이었는가. 나의 조국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신다. 그의 위대한 령도, 한없는 친화력, 자애로운 미소. 그 미래속에 인민의 화합과 단합은 날이 갈수록 굳건해지고있다. 머지않아 세계적인 강국으로 솟아오를 조국의 앞날을 축복한다. 의지가 강하고 근면한 사랑하는 나의 조국인민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김 에두아르드 니콜라예비치 (재로동동)

뿌리깊은 대결 약속을 버려야 한다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참사 한국철과 기자가 나눈 대담 —

위한 《베라통신작전》이라는 것까지 감행하였다.

남조선당국은 1972년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합의를 짓밟고 베라살포에 미쳐달려왔다. 박정희 《정권》은 7.4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돌아앉자마자 《한장의 종이장에 운명을 맡길수 없다.》고 하면서 베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심리전을 포함한 대결과 전쟁책동에 더욱더 매달림으로써 공동성명을 백지화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이어오던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력 사업들이 깨지고 중도반란되게 된것도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이 북침전쟁도발에 미쳐달려면서 베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심리모략책동을 발판적으로 감행한것과 중요하게 판단된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 후 북남군사당국사이에 베라살포를 포함한 모든 심리전을 중지하고 일체 적대행위를 종식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탈북자》인간쓰레기들과 극우보수단체들을 내세워 베라를 살포하는 교활한 수법에 매달렸다. 리명박 《정권》 시기에 악랄하게 감행된 베라살포놀음은 현 《정권》에 이르러 더욱 무분별해진 미수사가 체포된 사실 한가지만 놓고보아도 충분히 알수 있다. 보수당국은 24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대형통신 4개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날리려 하자 경찰을 내몰아 풍선을 쪼개버린 행위로 서슴지 않았다. 《법적근거가 없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남조선의 《항공법》에 《휴전선부근은 P-518로 비행금지구역에 해당. 대북전선통신살포가 제한된다.》고 되어있고 《항공법》 시행규칙 14조에 《이를 어길시 항공법 172조에 따라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있다.

기 자: 남조선당국이 《민간단체의 자물쇠》이니, 《표현의 자유》나, 《법적근거가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베라살포를 조장하고있는것도 언언도언이 아닌가. 한국철: 그렇다. 그들이 떠드는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새

빨간 거짓말인가 하는것은 지난 10월 20일 서울 광화문거리에서 집권자를 비난하는 베라를 뿌린 미술가가 체포된 사실 한가지만 놓고보아도 충분히 알수 있다. 보수당국은 24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대형통신 4개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날리려 하자 경찰을 내몰아 풍선을 쪼개버린 행위로 서슴지 않았다. 《법적근거가 없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남조선의 《항공법》에 《휴전선부근은 P-518로 비행금지구역에 해당. 대북전선통신살포가 제한된다.》고 되어있고 《항공법》 시행규칙 14조에 《이를 어길시 항공법 172조에 따라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있다.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은 과주, 련천 등 한강이북지역이 모두 해당되며 대북전선통신은 《항공법》에 따라 국방부와 《한》미련한것에 따라 인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것은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포망동이 남조선당국의 묵인조종과 남조선경찰 미군의 보호하에 감행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보수당국이 떠든 《표현의 자유》, 《법적근거가 없다.》는 발언들이 껌변이라는것을 립중해 주고있다. 기 자: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운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베라살포소동을 완강한 투쟁으로 저지파탄시키고있지 않는가. 한국철: 지난 25일 베라를 살포하려는 쓰레기단체들의 책동에 맞서 파주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트랙토도로 립진각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베라와 풍선들을 쪼개버리면서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등 120개 시민단체들도 호소문을 통하여 반공화국베라살포는 남북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베라살포를 저지시킬것을 당

국에 요구하였다.

《한겨레》, 《한국일보》, 《동일뉴스》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보수단체들의 베라살포행위는 단순한 《풍선놀이》가 아니라 위협천만한 불장난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군사적긴장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오늘 베라살포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여러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속에서까지 울려나오고있으며 얼마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베라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기 자: 결국 반공화국베라살포를 막는가 막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할수 있다고 본다. 한국철: 남조선당국자들이 입만 열면 《신뢰》, 《대화》니 하는 소리들을 늘어놓고있지만 이번 사태들을 통해 그들이야말

로 말과 행동이 판이하게 다른 이중성의 소유자들이라는것이 날마다 드러났다.

지금 반공화국베라살포소동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남조선사회내부에서도 심각한 사회적으로갈등을 초래하고있으며 그로 인해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의 베라살포소동은 남조선각계의 투쟁에 의해 립진각에서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남조선당국이 음모양모로 보수단체들을 지원한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북남관계는 민족의 양명과 직결되어있고 여기서 양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 결발된 《표현의 자유》나 《민간단체의 자물쇠》보다 몇십배배 더 중한것은 민족의 안전과 남북관계, 통일이다.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제 할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대결립장에 사로잡혀 인간쓰레기들의 극도의 반복대결소동을 묵인한다면 남북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게 된다.

은 겨레가 지켜보는 지금 남조선당국은 속에 품은 대결속심을 버리고 진정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바른 길에 나서야 할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통일부는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포놀음과 관련해 《제3차

과연 통일부가 할 일인가

필 법적근거가 없다.》느니, 《헌법에 표현된 권리행사》이니 뭐니 하면서 그를 극구 비호추진하고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북남사이의 《대화》에 대해 입이 닳도록 말하고있다.

통일부의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아연해하고 분격을 금치 못하고있다. 저게 과연 통일부인가.

화해와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북남대화와 동족을 적대시하고 상대방의 체제를 중도하라는 내용의 베라살포가 제대로 립립될수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탈북자》단체들도 저들이 《북 민주화》를 위해 베라를 뿌린다고 내놓고 이야기하고있다. 그 《민주화》라는것이 무엇인가. 북의 《변화》, 《붕괴》를 뜻하는것으로써 대화상대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고 정치적으로도 참을수 없는 내정간섭행위로 된다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행위가 북남관계에서 어떻게 용인이 될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하는 일인데 막을수 없다는 하

도 광관적으로 벌리고있다. 남조선에서 어중이떠중이 인간쓰레기들이 벌리고있는 베라살포놀음의 뒤에는 막대한 자금까지 쥐어주며 부추겨대는 통일부가 서있다. 과연 남조선의 통일부는 무엇을 위한 통일부인가. 지금 민족의 엄한 시선이 남쪽의 통일부를 지켜보고있다. 더이상 거세를 기만우롱할것인가, 이제라도 량심의 가책을 느끼고 민족이 바라

는 옳은 행동을 할것인가. 남조선의 통일부는 옳은 결단을 하여야 한다. 통일부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것을 확정하면서 2007년 로부터 《정권》 시기에 작성된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창설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의 내용을 통채로 빼버려 온 거리의 격분을 산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통일부는 길으로는 《신뢰》를 떠들면서도 《도강비》라는 인성함까지 만들어놓고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람치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으며 잊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반공화국모략소동

개최직전까지 갔던 북남당국회담을 가망치않은 《격》과 《굴》문제로 시비를 걸며 끌끌내 무산시킨것도 바로 통일부이다. 그런가하면 지난 6.15시대에 북남상천리에 차근차근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북에 끌려다니는 결과》로 증상모독하고 《과거 남북관계에서 겪었던 문제들》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북남대결을 앞장에서 선동해나선것이 통일부이다.

통일부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것을 확정하면서 2007년 로부터 《정권》 시기에 작성된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창설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의 내용을 통채로 빼버려 온 거리의 격분을 산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통일부는 길으로는 《신뢰》를 떠들면서도 《도강비》라는 인성함까지 만들어놓고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람치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으며 잊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반공화국모략소동

오늘도 잠들지 못하고있다. 얼마전 전 당국자는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이라는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아내고있는 《세월》호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국회》청사앞에서 《대통령》회담을 요구하는 《세월》호 희생자가족들을 경찰들로 봉쇄하고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이것이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참혹한 현실이다.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하여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도청하며 저들의 눈에서 거슬리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립안하는 보수당국이 남조선에 세계최악의 인권불보로 만든 저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서나 가리워보려고 그 누구의 《인권》을 떠들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워보려는 어리석은 껌변일 따름이다.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심화될수록 그것은 남북관계를 파탄내며 돌아놓고 동족대결을 더욱 격화시키며 종당에는 전쟁을 몰아오는 무분별한 행위로 될뿐이다.

대결과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분노의 웨침을 새겨듣고 대결과 전쟁만을 불러오는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장 령 철

역시 하는것은 쓰레기 넣어놓는 일

남조선에서 베라살포망동을 벌리고있는 박삼학을 비롯한 인간쓰레기들이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하여 여론의 눈길을 끌고있다. 죄목은 《일부 《탈북》단체가 술한 베라와 라지오,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것은 쓰레기를 투기하여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행위로 법에 위반된다.》는것이다. 이 단체는 앞으로 베라살포가 계속될 경우 상습적인 쓰레기투기로 보고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청, 경찰에

고발할것이라고 밝혔다. 남조선의 환경운동단체가 베라살포를 쓰레기투기행위로 보고 경찰에 고발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금 《탈북자》단체들이 날리는 풍선에는 한두장도 아닌 수만, 수십만장의 베라가 들어있는것은 물론 소형라지오와 USB, DVD, 1US\$짜리 지폐 등이 섞여있다. 문제는 이것이 북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대부분 바람의 영향을 받아 남쪽지역에 떨어진다것이다. 더우기 인민군대가 기구소멸전투에 들어

가 베라가 북으로 날아가기에 코집이 굴렀고 비무장지대나 남쪽지대에 도로 떨어지게 되어있다. 베라살포망동이 벌어진 10월 25일 하루에만도 립진각일대에서는 현지주민들과 진보세력들의 완강한 저지로 풍선이 날아가기도 전에 터지고 여기저기에 베라가 너저분하게 흩날렸다. 하루종일 쫓겨다니다 못해 감지 못했던 한 야산에서 어둠을 리용하여 도적괴양이 처럼 2만여장의 베라를 풍선 1개에 매달아 살포하고 내뿜으나 그마저도 바람이 남쪽으로 불다나니 남조선지역에 뿌려져 쓰레기로 나뒹굴

었다. 가뜰이나 남조선은 미군기지에서 마구 버린 기름, 유독성폐기물과 리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대개사업》 등으로 하여 산과 들, 강하천이 실하게 오염되어 《환경재난》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우에 더러운 베라까지 산지사방에 떨어져 흩날리고있으니 환경단체의 불만과 항의는 당연한것이라고 본다.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는 동족에 대한 비방중상으로 북남간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것으로 하여 북은

물론 남의 주민들도 베라살포를 반대한다. 그런 베라가 인간에게, 겨레에게 해로운 《정치적공해물질》이라고 보는것은 너무도 라당하다. 남조선인민들과 북쪽각종 인민들은 반복베라살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지를 위해 협박과 불안을 뿌릴뿐 아니라 모처럼 대화의 흐름으로 진행되고있는 남북관계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숨도 못되는 인간쓰레기들의 무분별한 베라살포로 남남방에 불안과 공포가 휩쓸고있으며 전쟁위험이 증대되고있다. 그런데도 《베라장사》를 계속하겠다는 날뛰는 인간쓰레기들의 행동은 얼마나 추하고 역겨운것인가. 인간쓰레기들은 마땅히 쓰레기장, 소각장으로 보내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에서 가뜰이나 살기어려운데 더 살기어렵게 만들고 불안과 위협만을 몰아오는 《저 《탈북자》 쓰레기들》은 3국으로 추방하라.》는 분노의 웨침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천만번 당연하다.

본사기자 서 희



상전과 주구간의 위협천만한 군사적공모결탁놀음

얼마전에 진행된 제46차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회》에서 남조선당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2012년 4월 미국이 남조선에 넘겨주기로 되어있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전 리명박 《정부》의 구결로 2015년도 연기되었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현 남조선당국자는 《대통령선거》당시 남조선인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자기의 중요한 공약으로 내들었다.

그러나 집권하기 바쁘게 이를 집어 던지고 미국상전을 따라다니며 그 권지를 돌려대더니 결국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추대를 부린것이다. 외세에 아무굴종하면서 군사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남조선보수세력의 이번

망동은 천하에 들도 없는 쓸개배진 행위이고 친미사대매국행위의 극치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무기한 연기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이 영구화되고 남조선을 교두보로 한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이 일층 강화되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핵전쟁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남조선의 사대매국세력은 군사주권을 미국에 영구히 내맡긴 대가로 천문학적액수의 미군정비비와 미국무기구매, 《사드》 배치 등 미국상전의 날강도적요구를 받아들였으며 자기 군대를 미군의 대포밥으로, 남조선인민들을 미국의 핵전쟁인질로 더욱더 전락시키었다.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남조선호전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서라도 기

어 《체제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개꿈을 꾸고있다. 실지로 지금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미국의 지지밑에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따른 작전능력제고와 그 누구의 《핵 및 미사일위협》을 떠들며 선제타격체제인 《킬 체인》의 구축과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요격미사일 《페트리오트-3》의 도입 등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과 함께 북미싸이 공동대응작전계획까지 세우고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춤형역제전략에 따라 끊임없이 벌려놓고있는 북침전쟁영수소동도 극히 위협천만한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적극 편승한 남조선보수세력의 매국매족적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고있다. 현실은 미국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공화국이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고 선군위력을 백방으로 각저귀에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앞에서는 《관계개선》이니, 《대화》니 하고 떠들면서 뒤에서는 동족을 암살할 흉계만 꾸꾸는 남조선당국의 이중적행동은 조선반도에서 누가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누가 전쟁과 반통일을 추구하는가를 그대로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외세를 등에 업고 군통수권까지 걸머지며 대결의 불세, 전쟁의 불씨를 지퍼올리려 음모양모로 책동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죄악을 겨레는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김 령 옥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비정규직철폐를 요구하여 투쟁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비정규직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들이 10월 25일 서울에서 벌어졌다.

《세월》호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대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초발집회를 가지었다. 프랑카드와 초불을 든 집회참가자들은 유가족들이 바

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노총은 로동자집회를 가지고 비정규직철폐투쟁을 벌려나갈것을 선언하였다.

단체는 로동자들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철폐, 로조 파괴중지 등 로동문제해결을 요구하여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는 남북관계를 파국과 불신의 악순환에 몰아넣은 중요한 원인이 라고 생각한다.

안에서는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동족대결을 고취하